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러 점령지 우크라이나 기독교 지도자들 살해·실종 잇따라



영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살해·고문·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의 폴 로빈슨 대표는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파트너들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 스테판 포돌차크(59)가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Kherson)의 칼란차크 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그의 몸에는 고문 흔적이 보였다고 보고했다. 포돌차크 신부의 비극적인 발견은 그가 러시아 내무부 산하 극단주의 대응 센터 소속 요원으로 추정되는 조직에 의해 붙잡혀 끌려간 지 이틀 만에 일어났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오순절 교회 집사인 아나톨리 프로코프추크(Anatoly Prokopchuk)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Aleksandr)가 헤르손에서 납치되어 총살됐다. 그리고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거부한 후 실종되거나 러시아로 추방되는 기독교인도 있었다.

로빈슨 대표는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파들이 점점 더 극단주의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 억압에 직면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헤르손의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의 한 파트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들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유일한 희망을 찾는다”고 말했다. 현재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내에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곳으로 대피한 기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빈슨 대표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억압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며 “박해는 끔찍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희망과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연단되고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3-5)

하나님, 끝날 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교회에 대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핍박하는 러시아 정부를 꾸짖으시고, 고난 중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교회를 통해 저들도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환난 중에도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연단 받아 부끄럽지 않은 하늘 소망을 품은 예수 교회로 일어나, 주를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아이티, 국가기관 붕괴 직전...한인 교민 구출 시급

아이티에서 갱단 폭력 증가, 부패와 범죄 실종, 열악한 통치 구조로 국가기관들이 붕괴 직전에 이른 상태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8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티에서 폭력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4,451명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2일까지 1,554명이 사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폭력 사태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갱단이 인질을 붙잡아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 교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구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이티 현지 최대 섬유단지인 소나피 공단 내 10여 개의 한인 교민들의 사업체인 의류·가발 공장 종사자 60여 명과 공단 인근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교민들이 언제든지 갱단에 납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앞서 27일에는 아이티에서 사역하던 여성 선교사 2명이 현지에서 탈출했다. 현재 아이티의 치안 공백 상황과 관련 현지 상황에 밝은 한 선교사는 “우리 교민의 안전과 탈출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도미니카를 포함한 3국의 외교 협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악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4:8,13-14)

하나님, 붕괴 직전의 위태로운 사회와 국가기관들로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위태로운 아이티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간섭으로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말로 담을 수 없는 악행이 속출하고 있지만, 처벌할 힘조차 없는 이곳의 안전을 위해 주변 국가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폭력과 죽음을 일삼는 갱단과 사악한 마음을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민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아이티 되게 하옵소서.

▲ 한국, 미혼모의 신생아 매입·유기한 부부...징역형

딸을 키우면 행복할 것 같으며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샀지만, 결국 유기·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 씨와 남편 B(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이날 장 판사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야고보서 1:15,18)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린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느낌과 감정에 따라 갓난아기를 다시 유기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금도 부모의 손에 의해 유린당하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부재로 인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가르쳐 주소서. 교회가 언제든 깨어 전해야 할 십자가 복음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네 손을 펼지니라”
세계 8억 명 굶주리는데...매일 음식물 10억 끼 버려



전 세계 인구 중 8억 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 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전했다. 유엔환경계획은 27일(현지시간)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조 달러(1천350조 원) 상당 이상의 음식물이 버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 10억 톤 이상으로, 매일 10억 끼의 식사를 만들어 낼 물량이라고 유엔환경계획은 설명했다. 8억 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일 한 끼 이상을 제공할 음식물이 낭비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매일 10억 끼씩 버려진다는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폐기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이 버려지는 장소는 가정이 60%로 가장 많았고, 호텔·식당 등 서비스업소 28%, 정육점·식료품점 등 소매업소 12%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가정에서 식사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구매하는 경우 낭비가 생기고 개발도상국 등지에서는 냉장 시설 부족이나 운송 중의 손상 등으로 음식물이 상하면서 폐기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낭비는 온실가스 배출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농업용지 조성은 자연생태계 내 서식지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농경지 30%를 유지하는 규모와 맞먹는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최대 10%를 차지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라고 지적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나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명기 15:7,11)

하나님, 어딘가에선 굶주림으로 고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많은 양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에 탐심과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을 회개합니다. 욕심과 죄로 이웃과 만물을 고통하게 하는 죄인의 실존을 십자가 복음으로 비추시고 회복된 원형 생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이름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식량과 자원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일본 노토강진 이후 3개월...8,000여 명 피난·단수 여전

올해 첫날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8,000여 명의 주민이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도쿄신문을 인용,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피난민은 8,109명으로 집계됐다. 강진 발생 초기 집계된 피난민 3만 4,173명 중 24%는 여전히 여관이나 친척 집에서 지내거나 차 안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 지역 특성상 외부에서 복구 현장까지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박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작업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 건설업자는 말했다. 실제 노토반도 북부 스즈(珠洲)시를 중심으로 약 7,860가구는 수도 복구 공사도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단수 상태에 놓여있다. 또 주택 파손으로 인한 응급 가설주택 입주 신청 건수는 8,300건에 달하지만, 완공은 1,600가구에 불과하다. 한편 수도 도쿄와 동쪽으로 인접한 지바현에서 2월 하순부터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4월 2일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스기라 4:6)

하나님, 강진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에 온전한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지진을 대비하며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교회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시오. 복음 전파에 자유로우나 우상숭배가 가득하여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땅에 주님의 영으로 영혼의 회복을 이루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는 복된 땅 되게 하옵소서.

▲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사망 22% 감소...약물 남용 많아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사망한 노숙자 수가 전년과 비교해 22% 줄었지만, 마약 등 약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노숙자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고 1일 미주중앙일보가 전했다.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시 케네스 메지아 회계감사관은 '2023 홈리스 사망 현황' 통계 보고서를 통해 노숙자 9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숙자 사망자가 전년 1,167명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노숙자 사망 원인은 사고사 75%(678명)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사 18%(160명), 살인 4%(40명), 자살 2%(16명), 사인 불명 1%(6명) 순이다. 이와 관련 노숙자 사망 원인 자체 분석을 통해 65%(545명)가 마약 등 약물과 연관됐으며 사망자는 펜타닐, 필로폰 등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데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도다(시편 103:5-6)

하나님, 약물 중독으로 노숙자 사망률이 높다는 소식에, 마약이 사회에 얼마나 깊이 침투되어 있는지 보게 되며 지금도 이 일로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중독의 울무를 끊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세계 최대 펜타닐 생산국이자 소비국이 되어버린 미국을 꾸짖으시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억압과 고통으로 영혼을 능멸하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시고 심판하십시오.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 회개에 이르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되는 부흥과 회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리라”
대만,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강진 발생...일본·중국·필리핀에 쓰나미 경보**



3일 오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규모 7이 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 대만 섬과 일본 남부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 이는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화롄시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대만 동부 해안 깊이 15.5km 지점을 강타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 예측센터장은 진앙이 육지와 상당히 가까운 얕은 층이어서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을 느꼈다고 밝혔다. 우젠푸 센터장은 수도 타이베이 분지 지역이어서 고층 건물이 지진을 더욱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현지 방송사들은 지진으로 건물 두 채가 무너졌고, 무너진 건물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는 속보를 앞다퉈 내보냈다. 대만 중앙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쓰나미가 섬의 북부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기상청은 여러 개의 작은 쓰나미 파도가 마야코지마 남부와 오키나와섬에 도달했으며 이후 초기 쓰나미 경보 주의보로 격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당국도 높은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중국도 4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은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됐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중국지진네트워크센터는 첫 지진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대만에서 규모 5 정도의 여진을 5차례 기록했다.

대만 중앙 기상청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999년 발생한 지진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강타한 강력한 지진이라고 밝혔다. 1999년에 타이베이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은 2,400명의 사망자와 50,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줬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응센터는 3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만 전역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1천 1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출처: 로이터통신, CNN,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사무엘하 22:32-34)

하나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대만의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이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이신 주님께로 나아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땅을 흔드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고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진과 쓰나미로 마음 놓을 수 없는 주변 국가의 영혼들도 주님께 달려 들어와 보호받게 하시고, 환란 중에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한국 기독교단체들, 성전환 수술 증명 없이 성별정정 대법원 규탄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과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악대본)는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했다. 기독교보에 따르면, 단체들은 대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규탄하면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은 남성들에게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성별정정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폐지 검토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악대본은 지금 대법원행정처가 할 일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인 수술 확인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 사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만일 폐지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71개 교단과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뜻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예레미야 31:21)

하나님, 도덕적 사고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탄식하며 주께 탄원하오니 증명서 폐지 검토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진리의 이정표를 세우고 뜻을 만들어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사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삼아 주옵소서.

▲ 영국, 아동 성 정체성 상담 수요 급증...아동 대기자 5,000명

영국에서 아동의 성 정체성 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디언 등을 인용한 매일경제에 따르면, 유명 아동 젠더 클리닉인 타비스톡(Tavistock)·포트만 트러스트(Portman Trust) 성 정체성 클리닉이 폐쇄됐지만, 다른 병원 두 곳이 젠더 클리닉으로 지정됐다. 영국 국립보건국(NHS)은 어린이들의 성 정체성 상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런던 한 곳에 있는 전문 클리닉을 각 지역 서비스로 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 등의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토대로 해당 기관을 폐쇄했다. 그러나 이 기관을 대신해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Great Ormond Street Hospital)과 리버풀의 앨더 헤이 아동 병원(Alder Hey Children's Hospital)이 새로운 젠더 클리닉으로 지정됐다. 해당 병원에는 5,000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 영국 국립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011-2012년만 해도 성 정체성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50건에 불과했으나 2021-2022년 사이에 5,000건 이상 늘어나 10년 새 20배 이상 폭증했다.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한1서 3:7-8)

하나님,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권장의 병폐로 아동 성 정체성 상담이 늘어만 가는 이 땅의 위기가 바로 우리의 위기임을 고백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영국교회가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묵숨처럼 지키지 못한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진리로 깨어 일어나 가장 완전한 삶의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삶을 해치는 법적제재를 다스려 주시고, 사망의 길을 걷게 하는 악한 사탄의 거짓을 파하시 모든 영혼이 창조하신 원형의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